

지역 소식 통

고창군, 2024 명품수박
아카데미 수료식 성료

고창군이 지난 12일 ‘2024 명품수박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명품수박 아카데미’는 지난 9월 2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0회 3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최고품질 수박 생산 재배기술, 농부의 철학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그동안 명품수박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교육생 중 교육 과정을 수료한 66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수여 받으면서 수박 명품화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명품수박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고창수박 지리표시 등록과 함께, 고창수박의 발전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아카데미 수료자들 중 명품수박 생산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생산자가 재배한 수박을 프리미엄급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제8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을 내년 1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체류형농업창업교육은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실질적인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입교생은 9개월 동안 제공되는 숙소(공동주택 20호, 단독주택 10호)에서 생활한다. 특히, 공동체 시설하우스, 개인 텃밭에서 작물 재배와 관리, 최신 스마트팜 기술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입교생은 선도 농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로 농촌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외국인 근로자 새 기숙사 준공

정읍시, 쾌적한 주거 환경 · 체계적인 운영... 인권 · 일손 문제 해소 기대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한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농촌 인력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기숙사가 준공된다고 13일 밝혔다.

북면(칠북로 205)에 위치한 기숙사는 연면적 1441㎡, 지상 2층 규모로 객실

26개를 갖추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됐다.

각 층에는 공용 주방과 식당, 휴게공간을 마련해 54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 생활을 통해 빠르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숙사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남성 근로자 40여 명이 E-8 비자로 입국해 사용된다. 특히,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숙소 제공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사용료와 공과금을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조례 및 규칙을 통해 입주 기준, 감면 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비해 입주자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농가들이 일손 부족 문제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환경보전 · 안전농산물 생산분야 최우수기관상’

정읍시, 과학영농 중심 차별화 노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주최 ‘농업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과학영농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노력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농업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대회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영농 분야에서 전국 166개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5월 ‘환경과 안전을 지향

하는 농생명 산업의 중심 정읍!’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익직불제 화훼벼료 사용 점검을 위해 토양 시료 2000점을 직접 채취해 신뢰도를 높였고 분석장비를 추가 설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퇴·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며 경축순환 농업을 실천했다.

또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1000건 실시해 첫 분석이 시작된 2022년 대비 2배 이상의 건수를 기록하며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유유미생물 자동 공급시스템을 도입해 일회용 파우치 포장에서 자동 분주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용과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고 농업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고창군 한우농가 방문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고창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를 찾아 농가를 격려하고 기술·관매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수진 실장은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 하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원장, 최강필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상무, 이화교 전북대학교 교수 등과 중우축산(대표 김문석)을 찾았다.

중우축산은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처음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사육한 한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날 중우축산 김문석 대표는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과 사양방식 등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히 저탄소 인증 한우는 출하까지 평균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일반 한우(평균31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사육기간을 줄이면서 메탄가스를 줄이고,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 개체 선발로 1+B등급 이상 출현율이 88% 이상으로 전국 평균 55%보다 고급육 출현율도 매우 높다.

박수진 실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한우 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맛과 품질 평가로 한 발 더 가까이

정읍시, 농업인 · 소비자 · 유통 참여해 지역 맞춤형 벼 식미평가회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읍민의 차별화된 쌀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정읍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식미평가회를 열고, 예비 품종의 맛과 품질을 검증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농협 및 RPC 관계자,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읍 맞춤형 벼 품종개발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정읍시, 농업인 유통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에 대해 5개 시험포에서 현장평가회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식미평가회에서는 2년차 실증 시험 결과와 품종 특성(이삭수, 알수, 수량, 등숙률 등)을 보고하고, 주 재배 품종인 신동진과 새청무를 비롯해 예비 품종 전주 677호, 전주 684호의 밥모양, 질감, 맛 등을 5단계로 평가했다. 또한 조곡, 현미, 정곡 상태를 비교하며 재배 및 유통 선호도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예비 품종에 대한 객관적 품질평가와 식미 평가에 기반한 소비자 선호도 의견 수렴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체에서 만족하는 정읍 맞춤형 품종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최적의 품종을 선별해 등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장애인체육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11일 부안반도비체육센터에서 2024 부안군 장애인체육인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4 부안군 장애인체육인의 날 개최

장애인체육 발전 기여 선수단 · 관계자 표창 수여

부안군장애인체육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11일 부안반도비체육센터에서 2024 부안군 장애인체육인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체육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김수안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부안군장애인체육회 창립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유공자 표창과 우수 단체 및 선수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는 부안군수상에 김남석 보치아 선수 외 4명, 부안군의회 의장상에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박정하 교사

외 4명, 부안군장애인체육회장상에 최우수선수상 육상 김경진 선수, 최우수단체상 게이트볼팀?보치아팀 등이다.

또 행사에 앞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 ‘외침’이 식전 공연을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순간을 축하했다.

권익현 군수는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부안반도비체육센터를 통해 장애인체육을 더욱 활성화해 장애인체육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 행사가 올 한 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다지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